



최 운 식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 춘천지검 차장검사
-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수단장 겸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1부장검사
-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 대구지검 김천지청 지청장
- 1990년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I. 프롤로그

제 각기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던 군상들이 어둠 속에 휴식을 간직하는 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간이 준 거리를 채워 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다다를 곳이지만 갈수록 길은 멀고 밀려오는 인간의 고통은 슬한 얘기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습조차 알 수 없는 달무리 속의 반달나의 모습은 북한강 맑은 물을 따라 흘러 갑니다.

남으로 남으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기에 아직 남은 힘을 모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산을 넘던 시간도 계곡을 따라 걸던 시간도 허기진 배를 안고 도로에 붙어버린 신발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인간의 정.

아직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어둠 뒤 당신이 가고 있는 길만큼이나 내게 소중한 길이고 당신 모습만큼이나 소중한 나의 모습이 아직 희미하게 길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꺼풀 인간의 가식된 옷을 벗어 버리고 조금 더 솔직한 인간으로 나는 울면서 걸어야 합니다.

이 지루하고 조용한 침문의 행군이 끝나는 순간 별거벗은 고독한 인간으로서 내가 서 있는 시간의 장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자! 흐름을 역류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가지 않는 길은 빈 술잔을 재촉하고 나의 인간으로서의 성숙한 욕망은 나를 더욱 깊은 고독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글머리에 제 수험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읽혀질 글을 쓴다는 것은 무모함에 가까운 용기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필요하였습니다.

특별한 고시체험도 없는 제가 쓸 수 있는 글은 인색역정의 기록이기 보다는 제 자신의 수험생활을 기록함으로써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쓰고자 합니다.

## II. 수험생활

### 1. 방향기

저의 수험생활의 시작은 재수를 한 후 한양대 법대에 특대장학생으로 입학한 1981년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선택이 제게 길어진 수험생활을 가져다준 선택일 줄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등록금면제와 생활장학금의 지급은 어린 시절 가난했던 제게는 너무 큰 유혹이었습니다. 경제적 여유는 정식적 방향을 가져다주었고 법대진학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미련을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학생활이 가져다 준 것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함께 방황하던 소중한 친구 몇 뿐이었습니다. 85년 대학졸업 후 도전한 1차 낙방은 결정적으로 고시와 멀어지게 만들었고 취직을 위해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제게는 대학시절이 가장 힘들었고 암울했던 시간

이었습니다. 꿈도 없었고 술과 더불어 간신히 하루하루를 지탱할 뿐이었으니까요.

### 2. 군생활

조금 늦게 온 군대 생활은 제게 있어 인생의 좌표를 정하는데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린 고참들과의 융화문제 술선수범하려했던 생활태도는 처음으로 부대 내에서 제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상급자와 부대원들의 격려 속에서 고시에 대한 당위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쁜 보직덕분에 고시에 대한 집념만 키웠을 뿐 공부는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 3. 도전기

1988년 2월 17일 만기전역 후 고향에 돌아왔을 때 군에서의 고시에 대한 집념이 많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의 책망,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더 이상 저를 견디기 힘들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격려와 친구 종영이의 도움으로 충남대 도서관에서 수험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1) 1988년

2월 15일부터 1차시험 직후까지 종영이 자취방에서 기거하며 충남대 도서관에 새벽부터 나가 밤 11시경 돌아올때까지 1차준비에 전념하였는데 어학인 영어공부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불안함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예상대로 7개 정도의 차이로 낙방한 후 공주 황룡대에서 보낸 기간은 고시공부 계속여부에 대한 심한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때

원장인 친구 유환이의 도움으로 계속 공부할 마음을 굳히고 1차 불합격의 고질적 원인이었던 어학을 불어로 바꾸고 고등학교 자습서인 오중자 교수님 책으로 일회독을 한 후 고시반 수석조교님이시던 남북현 선생님의 도움으로 10월초 고시반에 입반하게 되었습니다.

10월부터의 특강은 오랜만에 듣는 강의였던지라 열심히 듣고자 애쓰며 특강 평가시험을 치루어 상당한 공부량을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 (2) 1989년

고시특강이 끝난 후 다시 공부 황룡대에 도착하면서 제 의지에 대한 확인으로 담배를 끊고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 3법과 불어를 중심으로 1차 준비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후 다시 고시반에 들어와 3월초부터 문제집을 위주로 학교 도서관에 나가며 1차준비에 전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아마 제 수험생활 중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때 저에게 항상 용기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으로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채종훈선배님을 만난 것은 커다란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1차시험이 끝난 후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 모든 책은 후배에 주고 난 뒤 2차 준비에 들어갔으나 1차에 한번도 합격해 보지 않았던 불안감이 더 이상 진도를 막았고 닦쳐온 2차시험에 그저 열심히 참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2차 준비에 최선을 다 했더라면 1년이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2차시험 후 그 다음날 김천 직지사 운수암

으로 짐을 꾸려 떠난 후 1달 동안 행정법과 상법 Subnote를 개략적으로 만들고 소송법까지 1회독한 후 다시 학교 도서관으로 돌아와 공부를 시작했지만 발표날이 가까워지면서 흔들리게 되어 9월 20일경에야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당국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실시하는 특강에 열심히 참여하려 노력하면서 세미나를 병행하며 12월 초순까지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고시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과 내 나름 공부 방법론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 함께 세미나팀을 구성했던 중제, 용성, 형준 그리고 호순이 등은 어려운 수험생활에 끝까지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특강 기간 중 전과목 수강과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세미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때로서는 정말 강행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모두 자신감에 충만했던 시기였습니다.

## (3) 1990년

결전의 한해가 시작되는 날부터 수험 장소 문제로 홍역을 치루고 다시 기숙사로 복귀한 후 새벽 6시에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2월말까지 소송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을 1독한 수 다시 세미나팀에 영한 선배님과 합류하여 전주 고시원에 내려간 뒤부터 매일 2회씩 시험을 보고 채점과 강평을 계속해 신림동에 있던 5월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도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식사 후 민법 Case 2문제씩과 행정법하 상법하 형법명론의 문제를 산책하면서 꼬박꼬박 정리했던 것입니다. 소홀하기 쉬운 과목에 대한 자신감 부여

는 다른 과목공부에도 상승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5월초 다시 기숙사로 돌아온 후 체력에 대한 불안과 불합격에 대한 걱정에서 열흘정도 책인 잡히질 않아 해매던 시간은 제 자신이 그리 초라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세미나팀 멤버의 재합류와 효재형의 도움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 후부터는 Subnote를 중심으로 마지막 정리에 들어가 3회독식 하면서 서브노트를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마지막 수험생활의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 (4) 2차시험 기간 중

7월 3일부터 치루어지는 2차시험을 앞두고 열흘전쯤 국민대 뒤편에 하숙집을 정하고 국민대 도서관에 나가며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수험장 분위기에 미리 친숙하고자 하였습니다. 시험 전날 매과목에 대해 효재형, 그리고 세미나팀과 함께 몇 문제씩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을 식사시간 때마다 갖곤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큰 효과 있었습니다.

첫째날 윤리문제 중 위정척사론이 항일운동에 미친 영향을 논하라는 문제는 작년에 개화사상과 실학사상의 연계성이란 문제가 나와서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행히 작은 문제들은 한 번씩 본 기억을 더듬어 쓰고 큰 문제는 상식선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64점).

둘째날 행정법은 대체로 무난했으나 큰 문제인 행정소송의 한계 중 내용 몇 개를 빼먹고 쓴 것이 아쉬웠습니다(60.33점). 상법은 어음양도인이 책임을 면하는 방법을 당황하여 영

업양도인의 책임으로 알고 초안까지 작성한 루 다시 쓰는 바람에 시간에 쫓겨 혼이 났습니다(65.33점).

셋째날 민법 큰 문제는 전날 세미나팀끼리 이야기하다 이영준원장님 책을 복사해 나누어 보아서 상당히 고득점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56.33점). 아마 채점은 세 교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소법에서는 평소 관심 있었던 부분이 출제되어 욕심이 생겼는데 이것이 페이지계산을 착오하게 하고 큰 문제를 세장 반 그것도 처음에는 넉넉히 쓰다 한 장 남겨 놓고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뻑뻑이 쓰는 경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53.33점).

마지막날은 합격할 것 같다는 욕심에 전날 세 시간밖에 못 자 무척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형법은 무난한 문제여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67.33점).

형소법은 큰 문제는 특강시험에서 본 문제였으나 작은 문제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간신히 법전을 찾아 베끼다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55.33점).

형소법이 끝난 후 밖으로 나온 후 그동안 못 피웠던 담배를 피워 물고 하늘을 쳐다보니 파란 하늘이 왜 그리 슬퍼보이던지요. 홀가분함은 내 가슴에 다른 명예를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

#### (5) 3차시험

2차 발표 후 축하인사를 받다보니 3차시험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막상 합격인원이 정해지지 않아 무척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막막해졌습니다. 선배합격생들의 3차 대비 특강으로 어느 정도 3차 운

곽을 잡게 되었고 민법과 형법 그리고 형소법의 기본개념을 위주로 대강보고 갔습니다. 다행히 면접위원님들께서 쉬운 질문을 하시어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 Ⅲ. 공부방법론

#### 1. 세미나

저의 경우 세미나에 가장 큰 승부수를 걸 정도로 관심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한양대에서는 세미나 운영 자체가 별무했었고 처음으로 2차준비를 하는 우리들로서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그 팀은 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후유증은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장점으로서는 보다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가져다주고 그 단점으로는 함께 읽힐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해줍니다. 우리 세미나팀의 경우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지만 주로 택한 방법은 각자 몇 문제씩 대학 노트 2장 분량으로 정리해 복사해 나누어 준 다음 그에 대한 강평을 함께 하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계속적으로 보며 그 문제를 상호 보완하는 방식을 지속했습니다. 가장 세미나의 도움을 받았던 일은 공부 분위기를 익힐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음은 깊이 있는 공부를 구성원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서로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합격에 대한 가능성과 자신감이 더해질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잡았는데 처음 세미나할 때는 2시간 정도로 잡고 시험시간은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정도로

잡았습니다. 문제선정은 각자 무작위로 세 문제씩 출제하고 돌려 시험을 치른 다음 채점과 강평을 했었습니다. 저의 경우 합격의 상당한 부분을 세미나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우정은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깊이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Subnote

Subnote는 그 장점으로는 문제를 요약함으로써 암기에 도움을 주소 공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험 전날 전과목을 1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으로 Subnote에만 의존하게 되면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게 되고 정리된 지식 외에는 전혀 답안작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부라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Subnote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작성 후에도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작성자 자신도 모르게 되어 다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전과목 Subnote를 작성하였는데 한번에 완벽히 작성하기 보다는 정독한 다음 써보는 정도로 개략을 목차로 잡고 다음번 읽을 때 내용을 조금씩 보충하는 정도로 마무리하여 암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서브노트 외의 책은 보지 않고 조금은 여유있게 정리가 가능했던 것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Subnote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작성하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문제를 선정하지 말고 가장 가능성 있는 문제에 복잡한 문제, 비교할 수 있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 60~80문제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 3. 교재 선택

#### (1) 1차 교재

다른 고시잡지에 실린 합격기 내용과 대동소이하나 우선 기출문제를 꼭 풀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출제 내용 분석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집 세권보다는 같은 문제집을 세 번 푸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집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가장 두꺼운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민법의 경우는 너무 두꺼운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유는 1차문제집은 다른 문제집을 참고하여 만들기 때문에 오답이 적도 최근 경향을 담은 문제집이란 가장 최근에 만든 문제집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2) 2차 교재

교과서는 과목당 한권씩만 선택하였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느 교수님께서 저술하셨던 점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헌법 : 교과서 - 권영성

문제집 - 강창웅

논문 - 허영·구병삭

민법 : 교과서 - 서동우·오관석

문제집 - 김준호 사례연구선집

논문 - 김주수·권오승·고상용

형법 : 교과서 - 이재상

문제집 - 김태기·김인주

논문 - 이재상·차용석·정성근

행정법 : 교과서 - 이상규

문제집 - 김난진

논문 - 석종현·김남진·신보성

상법 : 교과서 - 최기원·정동윤(회사법)

문제집 - 상법요론 박민배

민소법 : 교과서 - 정도윤

문제집 - 이시윤·김광태·황정근

논문 - 강현중·이시윤·양병희

형소법 : 교과서 - 이재상

문제집 - 백형구

논문 - 차용석·김희옥

### 4. 공부장소

공부장소로 어느 곳이 마땅한가에 대답은 스스로 구해야 할 것이지만 혼자 공부한다면 도서관이나 고시원 같은 곳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장기간 공부하는 데 지지 않아서 좋고 고시원은 단기간 집중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세미나를 하는 경우는 세미나실이 준비된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이 타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공부장소를 옮기는 것도 좋지 않지만 한 곳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타성에 젖어들게 되고 오히려 공부에 방해되는 수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2~3개월마다 장소를 바꾸어 보는 것도 좋은 듯 싶습니다.

### 5. 건강관리

시험이 다가올수록 건강에 철저한 관리를 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 시험자체를 포기하는 예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시험 한달 전까지 축구나 농구 등을 자주 하고 식사 후 규칙적인 산책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

던 저의 경우에 막판에 체력에 이상을 느껴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식사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생체리듬이 최고조에 달할 것을 가정해서 역산한 다음 33일 전, 28일전, 그리고 23일전에는 가장 쉬운 과목 중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그때마다의 생체리듬을 최고조에 다다른 느낌을 갖도록 제 컨디션을 조정하였습니다.

#### IV. 에필로그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보리꽃이 필 무렵이면 움켜쥔 허기를 달래주려 끓여주시던 어머니의 사랑의 죽 한 그릇, 눈물이 담겨 목이 메이던 그 짜라기 한알 한알이 갈증 나는 겨울밤을 애처롭게 합니다. 그 따사롭던 어머니의 정은 이제 거칠고 갈라진 손끝 마디마디에서 전해져 시름에 잠긴 고시원 골방의 제 손을 잡아줍니다.

눈이 짜라기 되어 내리는 밤이면 삶에 얽어매어진 싹지 끈을 풀어서 몇 번씩 접어 간직한 지폐 한 장을 쥐어주시던 사랑이 계속되어 옵니다.

상심한 마음에 달덩이처럼 비추어 주시던 어머니의 다정한 눈동자가 있기에 오늘도 꿈 꿔 얼어붙은 책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식어가는 고향집 아랫목에 추울세라 불을 지펴주시고 이불을 덮어 주시던 모습모습이 스치는 추위에 더욱 뚜렷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어머니는 언제나 나의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짜라눈 내리는 이 밤 두 불에 뜻 모를 온기가 흐릅니다(1989.1.7.).

세상이 제게 행운을 주었지만 저는 이 행운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지난 세월동안 찌든 가난 속에서 언제나 못난 자식에 한을 안고 사신 어머님께 작으나마 효도를 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생들과 긴 수험생활을 뒷바라지 해주신 한양대재단과 교수님, 고시반 조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 술한 세월동안 애벌레로 살아야 하는 고통을 이겨내야 하듯이 비록 작은 성취나마 술한 고통을 잉태한 후 얻어진 것이라면 성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느 산사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계실 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같이 했던 후배 호순과 소중한 친구 선호의 합격을 바라며 빈 場이란 제목의 글을 마지막으로 적어 봅니다.

추운 바람을 가득 안은 나뭇의 아픔은 쉽게 피  
어오르지 못하는 이의 슬픔  
어느 순간 봄이 가득하고 푸르른 잎이 세상 가  
득 피어나고 빈 공간 있어  
내 머물 곳 있다면  
쓰디쓴 열매 눈물 방울 거두어 맺으리라

기나긴 과거의 아름다움이여  
내 안타까운 젊음이여  
부서진 영혼이여  
우리 무엇을 바라  
지난 세월을 묻어야 했는가?